

로동신문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19호 [투게 제25097호] 주제 104 (2015)년 11월 15일 (일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위대한 승리로 빛내이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원들과 건설자들에게 선물을 보내시었다

주체혁명의 성지 백두대지에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자랑스러운 청춘기념비를 높이 일떠세워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창건 일흔들을 꽃피게 장식하는 대경사를 안이온 영웅청년들과 건설자들이 크나큰 은정을 받아안았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원들과 건설자들에게 선물을 보내주시었다.

백두산영웅들의 애국충정의 위훈을 우리 당과 조국청사에 가장 값높이 빛내어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주체혁명의 성스러운 뿌리가 내린 백두대지의 건설장소에서 끊임없는 혁신을 이룩해나가고 있는 그들에게 여러차례에 걸쳐 많은 식료품들을 보내주신데 이어 이번에도 또다시 송동복과 겨울내의, 린신발을 비롯한 갖가지 생활용품들을 보내주시는 신실한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

에는 북방의 혹한속에서 거창한 기념비적장조물들을 일떠세우는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원들과 건설자들에게 사소한 불편이라도 있을새라 마음쓰시는 친어머님의 뜨거운 사랑과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자랑한 로력적성과 빛내이며 혁명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총진군대오의 진열에서 백두청춘의 위용을 힘차게 펼쳐나갈것을 바라는 크나큰 믿음이 담겨져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주신 선물을 전달하는 모임들이 13일과 14일 현지에서 진행되었다.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원들, 건설자들, 일꾼들이 모임들에 참가하였다. 모임들에서는 선물전달사가 있었다.

연설자는 우리 청년들을 세상에 높여주는 영웅청년선화의 창조자로 내세워 주시며 하늘같은 은정을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군혁명명도의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백두전지의 전사

들에게 대를 두고 길이 전할 사랑의 선물을 안겨주신데 대하여 감사하였다.

그는 모든 청년돌격대원들과 건설자들이 백두산대국의 존엄이시고 강대성의 상징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어 최후승리는 확정적이라는 역적분변의 신념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원수님만을 굳게 믿고 따르며 결사옹위하는 김정은제일결사대가 필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주신 선물들이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전달되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독창적인 청년중시사상과 업적을 끝없이 빛내이시며 정력적인 령도로 조선청년운동의 최전성기를 펼쳐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육신의 정이 어린 선물을 받아안은 참가자들은 절세위인의 뜨거운 사랑에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모임들에서는 결의토론들이 있었다.

토론자들은 청년들이 강성국가의 문제를 안겨주신데 대하여 감사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당정책판별의 명장, 시대의 영웅으로 자량명철 것이라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안겨주신 《백두의 칼바람에 뜻을 닦고 조선혁명의 침로따라 폭풍쳐 내달리자!》는 믿음의 구호, 투쟁의 구호를 높이 들고 백두대지의 전투장마다에서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의 불굴의 기상과 용맹을 남김없이 파시해나갈데 대하여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시대의 앞장서서 혁혁한 위훈을 창조해나감으로써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 건설에서의 기적적인 성과로 맞이할 줄은 결의를 표명하였다.

모임들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올리는 편지와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본사기자

국가과학원 미생물학연구소에서 우리 식의 먹이첨가제들을 개발, 생산공정 확립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승리의 대피로 맞이하기 위한 총돌격전이 힘있게 벌어지는 속에 최근 국가과학원 미생물학연구소에서 나라의 양어와 축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과학연구성과를 이룩하였다.

지난 시기 수입에 의존하던 먹이첨가제들을 우리의 힘과 기술로 개발완성하고 생산공정을 확립해놓았다.

원료, 자재, 설비의 국산화를 실현함에 대한 당정책판결에서 비롯된 높은 열의와 연구자들이 기쁜 자랑찬 성과는 양어의 과학화, 집약화수준을 더욱 높이고 축산업발전을 위한 먹이첨가제 개발을 이룩한 것이다.

특히 높은 민족적자존심을 지키고 우리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여 모든것을 우리 식으로 창조하고 발전시켜나갈데 대한 당의 높은 뜻을 실천하는데 애써준것은 물론 먹이의 소화흡수율을 최대로 올릴수 있는 먹이첨가제들도 새로 개발하였다.

지금 당 제7차대회를 더 높은 과학기술성공으로 맞이할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는 우리의 미더운 과학자들은 연속공격, 계속전진, 계속혁신해나갈 마음의 신들매를 더 박박 조끼고 우리 식으로 개발한 먹이첨가제들을 생산실현에 적극 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본사기자 김성일

지난 10월 평양제기공장을 또 다시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 크나큰 기쁨을 드리었다.

새로 개발된 먹이첨가제들의 경제적효과는 대단히 높다.

같은 양의 먹이를 가지고 물고기와 집집수의 증체율을 훨씬 높일수 있는 반면에 사료단위를 기준으로 더 낫출수 있게 한다.

또한 항산화능력이 대단히 높은 물질의 생성과 함께 산성생물 축신시켜 물고기와 집집수의 면역력을 훨씬 높여줄수 있다. 이와 함께 스트레스와 산소결핍의 과학자들은 하루를 열흘, 백날맛잡이로 조개하면서 연구사업을 즐기게 될것이다.

특히 높은 민족적자존심을 지키고 우리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여 모든것을 우리 식으로 창조하고 발전시켜나갈데 대한 당의 높은 뜻을 실천하는데 애써준것은 물론 먹이의 소화흡수율을 최대로 올릴수 있는 먹이첨가제들도 새로 개발하였다.

지금 당 제7차대회를 더 높은 과학기술성공으로 맞이할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는 우리의 미더운 과학자들은 연속공격, 계속전진, 계속혁신해나갈 마음의 신들매를 더 박박 조끼고 우리 식으로 개발한 먹이첨가제들을 생산실현에 적극 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본사기자 김성일

새로 무은 고기배 <황금해-1>호 진수

총원 조 선 소 에서

은 나라에 사회주의바다항기가 처당치려 하는 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헌합기업소의 일꾼들과 총원조 선 소의 로동계급은 배우어전투에서 편일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였다고 그는 언급하였다.

은 일꾼들과 로동계급, 기술자들과 3대혁명조 선 소의 불타는 애국심과 창조적열의속에 수많은 설비들이 자체의 힘과 기술로 제작되었으며 대중의 경제지체와 열정이 남김없이 발휘된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신로고기배설계연구소와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원, 연구자들은 고집이런 탐구와 노력으로 우리 식 고기배설계를 완성하였으며 수산공업과 신로원양수산협기업소에서는 배건조에 필요한 많은 설비와 자재들을 자체에 보장하였다.

이러한 모든 전투장이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선참모라는 것을 명심하고 현대적인 고기배를 더 많이 무어내어 일꾼들과 로동계급의 정신력을 총동원시켜 더 많은 물고기를 잡아내야 할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보고서는 모든 일꾼들과 총원들이 당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충성으로 보답하였다는 결사의 각오를 지니고 물고기잡이와 배무에서 혁신적성과를 이룩함으로써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열의로 맞이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날알털기를 끝낸 단위들이 늘어난다

각 지 농 촌 들 에 서

우리 당의 인민사랑의 정치를 쫓아내려는 대중의 양양열의가 높아가는 속에 각지 농촌에서 날알털기를 일정에 빠진 단위들이 늘어나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태천군 은흥, 세명군 삼지강협동농장을 비롯한 평도협동단위들과 각지 천수배계의 농장들에서 날알털기를 끝냈다. 이것은 이곳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당과 집단의 말을 나누며 당의 사상판별전, 당정책옹위전에서 백두같은 애국충정을 다해가기 위해 날알털기전투의 하루하루를 위훈으로 수놓아온 결과에 이룩된 성과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당의 사상판별전, 당정책옹위전, 이것이 당에 대한 충정의 가장 뚜렷한 표시이며 당의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을 신념으로 간직하는 중요한 계기입니다.》

농업상에서는 각지 농촌들에서 올해의 불리한 기상조건으로 지난해보다 벼가을을 한주일 이상 늦게 시작한 조건에 맞게 짧은 기간에 날알털기를 끝내도록 하기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었다.

당 제7차대회를 우리 당역사에 특기할 혁명의 최전성기로 꽃피게 맞이하기 위해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평안북도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배반적일들이기를 앞세우며 모든 농업근로자들과 함께, 만부하의 동음을 새차게 울림으로써 매일 날알털기에서 높은 실적을 기록하였다. 결과 신철군 석화, 온건군 온화협동농장을 비롯하여 도인의 200여 개 농장들에서 날알털기를 끝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함경남도에서 200여개의 농장들이 날알털기를 계속하였다. 함주군 동봉, 정평군 풍성, 금야군 비탄협동농장을 비롯한 도인의 많은 농장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우리 인민을 하늘처럼 존대하고 스승으로 여기는 당의 믿음에 충성으로 보답하고자 하면서 로력과 기계수단을 총집중하여 그날계획은 그날로 어김없이 수행함으로써 짧은 기간에 날알털기를 해냈다.

평안남도 일꾼들이 봄내, 여름내 애써 지어놓은 낱알을 한 알도 허실없이 거두어들이기 위한 투쟁으로 농업근로자들을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평안군 원화, 개천시 봉전협동농장을 비롯한 도인의 백수십개 농장의 농업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고귀한 뜻을 받들어 오늘도 매일 낱알털기에서 높은 실적을 기록하였다. 원화, 개천시 봉전협동농장을 비롯한 도인의 백수십개 농장의 농업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고귀한 뜻을 받들어 오늘도 매일 낱알털기에서 높은 실적을 기록하였다. 원화, 개천시 봉전협동농장을 비롯한 도인의 백수십개 농장의 농업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고귀한 뜻을 받들어 오늘도 매일 낱알털기에서 높은 실적을 기록하였다.

강원도에서도 낱알털기를 짧은 기간에 계속하기 위한 투쟁의 열의를 지어왔다. 원산시, 원내군을 비롯한 여러 시, 군의 100여개 농장들에서 낱알털기를 일정에 빠지게 하였다. 평안도에서는 자랑을 떨치었다.

본사기자 윤용호

전례없는 생산적양양을 일으킬 열의안고

김정숙 평양 방 직 공 장 에서

김정숙평양방직공장 일꾼들과 농업근로들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우리 당역사에 특기할 혁명의 최전성기로 맞이하기 위한 총돌격전에 신각같이 떨쳐나 비인의 열풍을 새차게 일으켜나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당의 전투적구호를 높이 받들고 생산적양양을 일으키기 위한 총돌격전을 힘차게 벌려야 하겠습니다.》

공장당조직에서는 모든 농업근로들의 심장마다에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사랑과 은정을 깊이 새겨주는데 신차적인 관심을 돌려 생산적대중의 투쟁열의를 고조시키고있다. 당위원회에서는 1970년대의 경제선동방법을 구현하여 당 제7차대회를 빛나는 로력적성공으로 맞이할데 총돌격분위기를 온 공장에 세우고 위한 선동공세를 힘있게 벌리고있다.

당 제7차대회소식에 접한 공장 당의 수현명 농업근로들이 당원들처럼, 청년들처럼 당과 더불어 날고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리고있으며 이에 호응하여 모든 농업근로들이 떨쳐나 더 높은 생산적양양을 일으키기 위한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새차게 지펴올리고있다.

일미리에서 총공격전의 불길기 활활 타오르는 속에 날아오른다 혁신의 새 소식이 전해지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현재까지 357명의 년간 인민경제계획완수자가 배출되었고 이중 3명이 4년분 인민경제계획을, 3명이 3년분 인민경제계획을, 27명이 2년분 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하는 성과가 이룩되었으며 그 대렬은 계속 늘어나고있다.

방직종합직장의 청년정방직장, 3정방직장, 편사직장 전투원들이 전적의 앞장에서 내달리고있다. 이들은 생산물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맹렬한 사회주의 경쟁을 벌리고있으며 고대가 다음 목표를 도우려는 미용을 다

발휘해나가고있다.

직로종합직장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을 하루빨리 현실로 꽃피우기 위하여 새차게 생산적양양을 일으키는 데 힘차게 앞장선다. 1 직로직장과 2 직로직장의 모든 직로공들이 종전보다 한두배 이상의 기대를 더 많이 떨치면서 당의 호기심을 한층높이는 기동공들로 키우기 위한 사업을 잘하여 10월에만도 맡겨진 계획을 152.4%, 126.1%로 넘쳐 수행하였으며 그 기세를 높이지 않고 계속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현상에서는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위훈자들에겐 화학생유 방직종합직장의 로동자, 기술자들도 있다. 편사직장을 비롯한 모든 직장들에서는 26호선반을 따라배우는 총성의 모범기대 창조운동은 일관하게 이어지고 내밀어 설비마다 만부하, 만가공을 보장해나감으로써 생산성과를 끊임없이 확대해나가고있다.

모든 설비들을 눈동자처럼 애호관리하고 누구나 두문, 세문의 일감을 처리하는 기동이 전방종합직장에서 높이 발휘되고있다. 이곳 일꾼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현상에서 중요공정을 맡은 책임감을 심장마다에 간직하고 직기마다 만부하의 동음을 울려가고있다. 4 직로직장, 1 직로직장, 준비직장, 방직직장에서 설비들의 계획외에방부수대를 철저하게 세워 10월계획을 157%, 132%, 158%, 127%로 넘쳐 수행하였다.

염색종합직장과 타올직장, 편사직장의 일꾼들과 농업근로들이 설비들에 대한 정검보수공작으로 하고 표준조작법의 요구를 엄격히 지켜서 매일 생산목표를 어김없이 수행하고 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전례없는 로력적성공으로 맞이하기 위한 열의는 열의면에서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의 일꾼들과 로동계급은 계속 혁신의 불길을 새차게 일으키고있다.

윤금찬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더 많은 전기를

수 품 발 전 소 에서

실속있게 짜고들면서 로동자들과 기술자들을 전력생산소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일꾼들이 전력생산전투가 힘있게 벌어지고 있는 등 높은 열의와 애정이 넘쳐나고있다. 전력생산소에서는 전력생산과 로동자들은 전력생산에서 자신들이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올해에 계획했던 수백MW의 연체대면타입과 연체보수사업, 방수소하 단 용벽보수사업, 10월 중순까지 끝낸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연체정검보수사업 책임적으로 해나가고 있다.

일꾼들은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조건에서도 대담하게 작전하고 완강하게 실천하면서 여러 호기의 발전기들을 힘있게 가동시키면서 전력생산에서 높은 실적을 올리고있다. 수력구조물보수직장의 일꾼들과 로동자들은 전력생산에서 자신들이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올해에 계획했던 수백MW의 연체대면타입과 연체보수사업, 방수소하 단 용벽보수사업, 10월 중순까지 끝낸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연체정검보수사업 책임적으로 해나가고 있다.

본사기자 송창윤

수천 kW의 발전능력 조성

조 산 군 에서

자랑스러운 창조물이다.

군에서는 초산전, 구룡전, 화인전에 수천kW의 발전능력을 조성해놓음으로써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필요한 전력수요를 보장하고 있다.

군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군의 일꾼들은 초산청년1호발전소를 일떠세운데 이어 초산청년2호발전소건설을 대담하고 용이하게 내밀었다.

발전소건설시범부 일꾼들과 로동자들은 당이 결심한 사업을 단행하는데 힘을 다하고 있다. 초산청년2호발전소는 군의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결사투쟁의 정신, 자력갱생의 투쟁기풍이 낳은 성과이다. 돌격대원들은 수천kW의 발전능력을 조성하는 데 힘차게 앞장서고 있다.

발전소건설시범부 일꾼들과 로동자들은 당이 결심한 사업을 단행하는데 힘을 다하고 있다. 초산청년2호발전소는 군의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결사투쟁의 정신, 자력갱생의 투쟁기풍이 낳은 성과이다. 돌격대원들은 수천kW의 발전능력을 조성하는 데 힘차게 앞장서고 있다.

본사기자 송창윤



초산청년2호발전소에서

애국의 감동과 전력생산에 힘써

우리 당의 과학중시, 인재중시정책을 과시하는 미래과학자거리에 와보시라 더 높 이 울 려 라 로 동 당 만 세 소 리

우리는 지금 드넓은 미래과학자거리를 걷고있다. 돌아볼수록 황홀하기 그지없다. 이처럼 희한하고 특색있는 과학자거리가 하늘에서 내려앉은듯 것처럼 짧은 시간에 생겨났을 그 누가 상상이나 하였는가.

미래과학자거리에 특색있게 세워진 상징탑이며 총성의 다리로부터 양각다리까지의 대동강호안을 따라 하늘을 저를듯 일떠선 초고층, 고층빌딩들, 그뿐이 갖추어진 각종 상업, 금융, 편의봉사망들과 문화후생시설들이 눈부시게 일어난다. 그야말로 조선의 문명의 척도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술작품을 방불케 한다.

보는 사람마다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한없는 귀마음과 감동, 감격이 넘쳐나는 위대한 만민을 위한 크나큰 공지와 희열을 가슴속까지 느끼게 하는 미래과학자거리의 희한한 전경!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이 응축된 여기 미래과학자거리에서 우리는 이 황홀한 신경, 최대의 문명이 과연 어떻게 마련되었는지 하는 감동깊은 이야기를 소리높이 전하려고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 당은 이민위천의 한성으로 인민을 키우시고 조선을 빛내이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사상과 업적을 귀감으로 삼고 인민을 사랑하고 인민을 위하여 투쟁할것이며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이상을 실현해나갈것입니다.》

미래과학자거리!

그 이름부터가 의미심장한 이 거리는 우리 나라를 가가을 앞날에 온 세계가 부러워하는 사회주의명문국의 높이에 올려세우려는 당의 구상에 따라 대동강기슭에 일떠선 또 하나의 신경거리이다.

새길수록 가슴앓는다. 지난 10월 훌륭한 완공된

미래과학자거리를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당이 천사만사인 국가중에 과학기술발전을 어떻게 중시하고있으며 과학의 힘으로 세상에 다시 없는 인민의 학원, 강성국가건설 해가는 우리 조국의 현실을 알리면서 미래과학자거리에 와보면 될것이라고 그토록 걱정에 넘쳐 하시던 그 말씀, 과학으로 사회주의기초를 더욱 굳건히 다지고 과학의 기반차로 사회주의를 전진시키려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한 의지이다. 하기에 그토록 하셔야 할 일, 하셔야 할 단 위 않고있으시던만 여러 과학연구자들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든든히 다지고 과학자, 연구자들의 생활상문제를 풀어주기 위한 사업에 선차적인 관심을 기울이신 우리 원수님이시었다.

최근년간 과학을 중시하는 우리 당의 관심속에 얼마나 많은 공장들과 현대적인 창조물들이 이 땅에 솟아났는가.

과학자, 교육자들을 위한 미래상점, 은하과학자거리,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위성과학자주택지구, 연봉과학자휴양소,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하지만 과학자, 교육자들에게 이 세상 제일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려는 우리 당의 사랑과 은정에는 아직은 있어도 끝은 없었다.

추억도 뜨거운 지난해 5월 휴먼지날리는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 살림집건설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과학자, 교육자들을 위한 또 하나의 거대한 건설작전을 펼치시었다. 그리고는 새로 일떠서게 될 거리의 이름을 《미래과학자거리》로 명명하는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시었다.

사람들이여, 물어보자.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 한 나라의 평도자가 평범한 과학자, 교육자들이 살게 될 살림집건설을 위해 직접 건설력량을 조차해주고 찬바람부는 추운 날씨에 비행기를 타고 건설정형을 지도해준적이 있었는가. 거리건설과 관련한 수

많은 형성안들을 지도해주시며 휴식도 잊으신채 헌신하시고 살림집에 놓을 가구와 비품에 이르기까지 마음 쓰신 우리 원수님 같은 위대한 아버지가 그 어디에 또 있었는가.

과학으로 새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시며 순간순간 과학자, 교육자들을 금세끼마냥 아끼고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떠나 생각할수 없는 미래과학자거리에서 오늘의 평양정신, 평양속도의 창조자들과 인민들의 애국열정을 다스리는 원수님의 이런 세심한 지도가 있어 미래과학자거리는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신경거리로 일떠설수 있었다.

사회주의문명국의 제도에 맞게 훌륭히 완공된 미래과학자거리를 돌아보시며 너무나 만족하시어 태양같이 웃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 지금도 귀기울이시던만 지난 10월의 그날 풍치수려한 대동강변에 일떠선 미래과학자거리의 공명같은 살림집들에서 우리의 평범한 교육자, 과학자들이 온 한낱 내지 않고 살게 된다는것을 알게 되면 다른 나라 사를 맡은 해당 단위의 일꾼들과 군인 건설자들은 최상의 문명, 최상의 속도를 창조해나가는 힘장을 가지고 미래과학자거리를 후세에 길이 남을 거리로 완공하여야 한다고...

과학자, 교육자들을 위해서라면 저 하늘의 별이라도 따서 안겨주시려는 우리 원수님이시었기에 미래과학자거리를 건설하면서 리발소, 미용원, 목욕탕은 물론 옷수리, 구두수리 등을 할수 있는 편의시설들, 약국, 식당, 상점, 도서관을 비롯한 의료 및 상업봉사망들과 문화시설들에 대해서까지 그토록 깊이 마음쓰신것이였다.

세대마다에 공동살림방과 함께 부모방, 부부방, 자식방, 부엌 등이 손색없이 꾸려지게 되고 곳곳에 휴식터들과 공인들이 멋들어지게 자리잡게 된것도 우리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세계를 떠나 결코 생각할수 없다.

우리의 군인건설자들과 근로자들은 미래과학자거리를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기적적으로 일떠세우고 조선을 정말 대단한 나라이며 매일, 매 시각 기적창조의 신화가 태어나는 나라라는 사실을 시대와 역사앞에 다시금 증명하였다.

정경 경애하는 원수님의 원대한 뜻에 떠받쳐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신경거리-미래과학자거리가 일떠설으로써 우리 조국의 문명의 중심인 혁명의 수도 평양시는 더욱 웅장화려하게 변모될수 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몸소 다녀가신 7.7호동 3층 1호에 일떠선 남다른 영광과 행복을 지닌 김책공업종합대학의 교원은 이렇게 말하였다.

《받아안은 행복이 너무나 품만 같아 온밤 잠들지 못하고 거리를 걷고 걸었습니다.》

그 어느 나라에서도 웅근 하나의 도시와 같은 황홀한 거리, 평범한 교육자, 과학자들을 위한 살림집이 떠서 미래과학자거리의 공명같은 살림집들에서 우리의 평범한 교육자, 과학자들이 온 한낱 내지 않고 살게 된다는것을 알게 되면 다른 나라 사를 맡은 해당 단위의 일꾼들과 군인 건설자들은 최상의 문명, 최상의 속도를 창조해나가는 힘장을 가지고 미래과학자거리를 후세에 길이 남을 거리로 완공하여야 한다고...

과학자, 교육자들을 위해서라면 저 하늘의 별이라도 따서 안겨주시려는 우리 원수님이시었기에 미래과학자거리를 건설하면서 리발소, 미용원, 목욕탕은 물론 옷수리, 구두수리 등을 할수 있는 편의시설들, 약국, 식당, 상점, 도서관을 비롯한 의료 및 상업봉사망들과 문화시설들에 대해서까지 그토록 깊이 마음쓰신것이였다.

세대마다에 공동살림방과 함께 부모방, 부부방, 자식방, 부엌 등이 손색없이 꾸려지게 되고 곳곳에 휴식터들과 공인들이 멋들어지게 자리잡게 된것도 우리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세계를 떠나 결코 생각할수 없다.

우리의 군인건설자들과 근로자들은 미래과학자거리를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기적적으로 일떠세우고 조선을 정말 대단한 나라이며 매일, 매 시각 기적창조의 신화가 태어나는 나라라는 사실을 시대와 역사앞에 다시금 증명하였다.

정경 경애하는 원수님의 원대한 뜻에 떠받쳐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신경거리-미래과학자거리가 일떠설으로써 우리 조국의 문명의 중심인 혁명의 수도 평양시는 더욱 웅장화려하게 변모될수 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몸소 다녀가신 7.7호동 3층 1호에 일떠선 남다른 영광과 행복을 지닌 김책공업종합대학의 교원은 이렇게 말하였다.

《받아안은 행복이 너무나 품만 같아 온밤 잠들지 못하고 거리를 걷고 걸었습니다.》

그 어느 나라에서도 웅근 하나의 도시와 같은 황홀한 거리, 평범한 교육자, 과학자들을 위한 살림집이 떠서 미래과학자거리의 공명같은 살림집들에서 우리의 평범한 교육자, 과학자들이 온 한낱 내지 않고 살게 된다는것을 알게 되면 다른 나라 사를 맡은 해당 단위의 일꾼들과 군인 건설자들은 최상의 문명, 최상의 속도를 창조해나가는 힘장을 가지고 미래과학자거리를 후세에 길이 남을 거리로 완공하여야 한다고...

과학자, 교육자들을 위해서라면 저 하늘의 별이라도 따서 안겨주시려는 우리 원수님이시었기에 미래과학자거리를 건설하면서 리발소, 미용원, 목욕탕은 물론 옷수리, 구두수리 등을 할수 있는 편의시설들, 약국, 식당, 상점, 도서관을 비롯한 의료 및 상업봉사망들과 문화시설들에 대해서까지 그토록 깊이 마음쓰신것이였다.

세대마다에 공동살림방과 함께 부모방, 부부방, 자식방, 부엌 등이 손색없이 꾸려지게 되고 곳곳에 휴식터들과 공인들이 멋들어지게 자리잡게 된것도 우리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세계를 떠나 결코 생각할수 없다.

우리의 군인건설자들과 근로자들은 미래과학자거리를 1년이라는

나의 감탄은 미래과학자거리에 들어서서 시작되었다.

대동강과 나란히 시원하게 뻗은 대로의 양쪽에 우뚝우뚝 솟아오른 살림집들, 특이 거창하고 중심이 깊은 대다 건축물들 하나하나가 독특한 미를 한껏 떨치고 그 멋들이 하나로 잘 어울려 그야말로 새 세기 건축예술품의 대화원이 바로 여기에 펼쳐져있었다.

시간은 퍼그나 흘러 나는 거리의 한끝에 이르러 되었다.

구름다리에 세워진 탑이 안겨주었다. 원자핵과 전자의 운동자리를 형성한 은백색의 탐미리를 바로 올라가면서 넘어진 탐미리가 남다른 영광과 행복을 지닌 김책공업종합대학의 교원은 이렇게 말하였다.

《받아안은 행복이 너무나 품만 같아 온밤 잠들지 못하고 거리를 걷고 걸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몸소 다녀가신 7.7호동 3층 1호에 일떠선 남다른 영광과 행복을 지닌 김책공업종합대학의 교원은 이렇게 말하였다.

《받아안은 행복이 너무나 품만 같아 온밤 잠들지 못하고 거리를 걷고 걸었습니다.》

그 어느 나라에서도 웅근 하나의 도시와 같은 황홀한 거리, 평범한 교육자, 과학자들을 위한 살림집이 떠서 미래과학자거리의 공명같은 살림집들에서 우리의 평범한 교육자, 과학자들이 온 한낱 내지 않고 살게 된다는것을 알게 되면 다른 나라 사를 맡은 해당 단위의 일꾼들과 군인 건설자들은 최상의 문명, 최상의 속도를 창조해나가는 힘장을 가지고 미래과학자거리를 후세에 길이 남을 거리로 완공하여야 한다고...

과학자, 교육자들을 위해서라면 저 하늘의 별이라도 따서 안겨주시려는 우리 원수님이시었기에 미래과학자거리를 건설하면서 리발소, 미용원, 목욕탕은 물론 옷수리, 구두수리 등을 할수 있는 편의시설들, 약국, 식당, 상점, 도서관을 비롯한 의료 및 상업봉사망들과 문화시설들에 대해서까지 그토록 깊이 마음쓰신것이였다.

세대마다에 공동살림방과 함께 부모방, 부부방, 자식방, 부엌 등이 손색없이 꾸려지게 되고 곳곳에 휴식터들과 공인들이 멋들어지게 자리잡게 된것도 우리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세계를 떠나 결코 생각할수 없다.

우리의 군인건설자들과 근로자들은 미래과학자거리를 1년이라는

나의 감탄은 미래과학자거리에 들어서서 시작되었다.

대동강과 나란히 시원하게 뻗은 대로의 양쪽에 우뚝우뚝 솟아오른 살림집들, 특이 거창하고 중심이 깊은 대다 건축물들 하나하나가 독특한 미를 한껏 떨치고 그 멋들이 하나로 잘 어울려 그야말로 새 세기 건축예술품의 대화원이 바로 여기에 펼쳐져있었다.

시간은 퍼그나 흘러 나는 거리의 한끝에 이르러 되었다.

구름다리에 세워진 탑이 안겨주었다. 원자핵과 전자의 운동자리를 형성한 은백색의 탐미리를 바로 올라가면서 넘어진 탐미리가 남다른 영광과 행복을 지닌 김책공업종합대학의 교원은 이렇게 말하였다.

《받아안은 행복이 너무나 품만 같아 온밤 잠들지 못하고 거리를 걷고 걸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몸소 다녀가신 7.7호동 3층 1호에 일떠선 남다른 영광과 행복을 지닌 김책공업종합대학의 교원은 이렇게 말하였다.

《받아안은 행복이 너무나 품만 같아 온밤 잠들지 못하고 거리를 걷고 걸었습니다.》

그 어느 나라에서도 웅근 하나의 도시와 같은 황홀한 거리, 평범한 교육자, 과학자들을 위한 살림집이 떠서 미래과학자거리의 공명같은 살림집들에서 우리의 평범한 교육자, 과학자들이 온 한낱 내지 않고 살게 된다는것을 알게 되면 다른 나라 사를 맡은 해당 단위의 일꾼들과 군인 건설자들은 최상의 문명, 최상의 속도를 창조해나가는 힘장을 가지고 미래과학자거리를 후세에 길이 남을 거리로 완공하여야 한다고...

과학자, 교육자들을 위해서라면 저 하늘의 별이라도 따서 안겨주시려는 우리 원수님이시었기에 미래과학자거리를 건설하면서 리발소, 미용원, 목욕탕은 물론 옷수리, 구두수리 등을 할수 있는 편의시설들, 약국, 식당, 상점, 도서관을 비롯한 의료 및 상업봉사망들과 문화시설들에 대해서까지 그토록 깊이 마음쓰신것이였다.

세대마다에 공동살림방과 함께 부모방, 부부방, 자식방, 부엌 등이 손색없이 꾸려지게 되고 곳곳에 휴식터들과 공인들이 멋들어지게 자리잡게 된것도 우리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세계를 떠나 결코 생각할수 없다.

우리의 군인건설자들과 근로자들은 미래과학자거리를 1년이라는

어머니랑의 뜨거운 은성 넘쳐나는 행복의 보금자리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팔레스티나국가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었다

라팔라르
팔레스티나국가 대통령
팔레스티나해방조직 집행위원회 위원장
팔레스티나민족당국 수반
마흐무드 아바스각하

나는 팔레스티나국가선로 27호에 즈음하여 당신과 그리고 당신을 통하여 친선적인 팔레스티나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독립국가창설권을 비롯한 합법적인 민족적권리를 되찾기 위한 팔레스티나인민의 정의의 위업이 반드시 승리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당신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성과가 있을것을 중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주제104(2015)년 11월 14일 평양

경도업적단위답게 잘 꾸려

숙청현면초수능장 초급당 위원회에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경도업적이 뜨겁게 깃들여있는 자기 단위를 시대의 요구에 맞게 더 잘 꾸리기 위한 사업에 힘을 쏟고있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특히 3대혁명붉은기 띠인 작업반을 더 잘 꾸려 배우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평도업적을 더욱 빛내여 나가도록 하는 사업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고있다. 3대혁명붉은기 띠인 작업반에 내려간 초급당일군은 작업반초급일군들과 무릎을 마주하고 작업반을 손색없이 꾸려나가는 데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일군들의 힘있는 정치사업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경도업적단위인 통장의 면모는 날날이 달라지고 있다.

로동동원 한영일

이 땅에는 영원한 인민사랑의 력사가 흐른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맞으며 다시한번 비약의 발돋움에 내걸은 원대한 민족의 마음속에 뜻깊은 10월이 더욱 소중히 안겨온다.

지금도 우리의 눈앞에 삼삼하게 일어난다. 10월의 하늘가에 울려퍼지던 장대한 축포의 피성과 주제의 해봉봉을 억세게 들이친 청년전위들의 화려한, 예술의 황혼경을 이루어 대동강변에 펼쳐졌던 1만명대공연... 10월의 경국광장에 용양처럼 분출하던 끝없는 감격과 환희의 파도와 함께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소중히 그리고 영원히 간직된것은 무엇인가.

조선로동당장전 70돌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의 심장을 뜨겁게 적시주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혁명이 준엄한 년대들마다 우리 당에 무한한 힘과 용기를 주었고 강인한 의지로 역사의 험한 통과속을 뚫고오며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언제나 당과 운명을 함께 해온 사랑하는 전체 인민들에게 당장진 일흔을 맞으며 조선을더욱더 힘있게 힘있게 건설해나갈수 있도록 하는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마리아에 한없는 정이 흘러넘치는 우리 원수님의 말씀을 받아안은 인민의 두볼로는 뜨거운 것이 소리없이 흘러내렸다.

이 세상에 걸이온 영광의 길에서 우리 인민이 실생활을 통하여 체득한것은 절세위인들의 이민위천의 숭고한 리념이었다.

인민위천, 승명히 불려불수록 인민을 위한 헌신의 길에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한생이 이어오나.

인민을 위한 사랑의 길을 한생토록 걸으시고도 80고령에 이르시어는 지평이를 걸고서라도 인민을 찾아가야 한다고 하시며 헌지지의 길을 떠나신 인민의 숭고하고 뜨겁게 말씀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지애에 넘치신 우리 원수님의 말씀은 인민의 심금을 울려주었다. 오직 일편단심 우리 당만을 믿고 따르며 역사의 폭풍우를 헤쳐온 성스러운 김피디에서 우리 인민이 온넛으로 떠득한 혁명의 진리 그것은 위대한 수령을 모셔야 인민이 위대해지고 조국이 위대해진다는 혁명의 신념이다.

돌이켜보면 지난날 국력이 약한땅에 나라를 빼앗기고 부침조 마당 떠다니며 망국인의 운명을 통탄하던 우리 인민이었다. 그 인민이 배우산절세위인들을

모시에 이제는 그 어떤 침략자도 감히 범접할수 없는 불패의 강국의 존엄높은 인민으로 되었다.

당을 따라 걸어온 영광의 길에서 우리 인민이 실생활을 통하여 체득한것은 절세위인들의 이민위천의 숭고한 리념이었다.

인민위천, 승명히 불려불수록 인민을 위한 헌신의 길에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한생이 이어오나.

인민을 위한 사랑의 길을 한생토록 걸으시고도 80고령에 이르시어는 지평이를 걸고서라도 인민을 찾아가야 한다고 하시며 헌지지의 길을 떠나신 인민의 숭고하고 뜨겁게 말씀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지애에 넘치신 우리 원수님의 말씀은 인민의 심금을 울려주었다. 오직 일편단심 우리 당만을 믿고 따르며 역사의 폭풍우를 헤쳐온 성스러운 김피디에서 우리 인민이 온넛으로 떠득한 혁명의 진리 그것은 위대한 수령을 모셔야 인민이 위대해지고 조국이 위대해진다는 혁명의 신념이다.

돌이켜보면 지난날 국력이 약한땅에 나라를 빼앗기고 부침조 마당 떠다니며 망국인의 운명을 통탄하던 우리 인민이었다. 그 인민이 배우산절세위인들을

모시에 이제는 그 어떤 침략자도 감히 범접할수 없는 불패의 강국의 존엄높은 인민으로 되었다.

당을 따라 걸어온 영광의 길에서 우리 인민이 실생활을 통하여 체득한것은 절세위인들의 이민위천의 숭고한 리념이었다.

인민위천, 승명히 불려불수록 인민을 위한 헌신의 길에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한생이 이어오나.

인민을 위한 사랑의 길을 한생토록 걸으시고도 80고령에 이르시어는 지평이를 걸고서라도 인민을 찾아가야 한다고 하시며 헌지지의 길을 떠나신 인민의 숭고하고 뜨겁게 말씀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지애에 넘치신 우리 원수님의 말씀은 인민의 심금을 울려주었다. 오직 일편단심 우리 당만을 믿고 따르며 역사의 폭풍우를 헤쳐온 성스러운 김피디에서 우리 인민이 온넛으로 떠득한 혁명의 진리 그것은 위대한 수령을 모셔야 인민이 위대해지고 조국이 위대해진다는 혁명의 신념이다.

돌이켜보면 지난날 국력이 약한땅에 나라를 빼앗기고 부침조 마당 떠다니며 망국인의 운명을 통탄하던 우리 인민이었다. 그 인민이 배우산절세위인들을

본사기자 김일권

반이 예방이 화적 방침에 관제하여 인리별이 건강을 책임지자

치료 사업에 앞서 중시 한 문제

찾아오는 환자들을 접수하고 그들이 환해질 때까지 정성다해 치료해주는것은 의료인들의 본분이다. 그래서 의료인들을 평가할 때에는 많은 경우 그들의 치료성과에 대하여 먼저 이야기하곤 한다.

하지만 개천시 무진대관광병원 일군들의 사업에서 주목되는것은 그들보다 먼저 환자들에게 진단을 주었다. 사람들이 병원에 찾아왔던적이 있다는 것이다. 같은 지역에서 같은 질병이 발생되고있다는 사실은 결코 스쳐지나보낼수 없는 중요한 문제였다.

몇몇 호담당의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어보니 그들은 그 원인을 밝히지 않았지만 찾아오려 하는것이였다. 그것이 정확한 원인이 못된다것을 잘 알고있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태도를 취하는 그들의 어조는 우리가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친근감을 주는것이였다. 아마도 이 병원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마을의 문제를나 꾸리기 문제가될는 특이한 문제들이 우선적으로 다루어진다.

하지만 이곳 병원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격이 다르다고 할수 있는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그토록 관심을 기울이고있는가. 언제인가 환부들 주된들의 건강상태에 대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토해하던 원장 김영학동무는 장병성정병을 앓고있는 몇몇 환자들의 병력에서 뜻밖에도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였다. 그들이 모두 한동안에서 살고있다는 사실이였다.

호담당의사를 불러 알아보니 몇달전에도 그 동네에서 이런 질병을 앓는 환자들이 병원에 찾아왔던적이 있다는 것이다. 같은 지역에서 같은 질병이 발생되고있다는 사실은 결코 스쳐지나보낼수 없는 중요한 문제였다.

몇몇 호담당의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어보니 그들은 그 원인을 밝히지 않았지만 찾아오려 하는것이였다. 그것이 정확한 원인이 못된다것을 잘 알고있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태도를 취하는 그들의 어조는 우리가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친근감을 주는것이였다. 아마도 이 병원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마을의 문제를나 꾸리기 문제가될는 특이한 문제들이 우선적으로 다루어진다.

하지만 이곳 병원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격이 다르다고 할수 있는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그토록 관심을 기울이고있는가. 언제인가 환부들 주된들의 건강상태에 대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토해하던 원장 김영학동무는 장병성정병을 앓고있는 몇몇 환자들의 병력에서 뜻밖에도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였다. 그들이 모두 한동안에서 살고있다는 사실이였다.

호담당의사를 불러 알아보니 몇달전에도 그 동네에서 이런 질병을 앓는 환자들이 병원에 찾아왔던적이 있다는 것이다. 같은 지역에서 같은 질병이 발생되고있다는 사실은 결코 스쳐지나보낼수 없는 중요한 문제였다.

몇몇 호담당의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어보니 그들은 그 원인을 밝히지 않았지만 찾아오려 하는것이였다. 그것이 정확한 원인이 못된다것을 잘 알고있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태도를 취하는 그들의 어조는 우리가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친근감을 주는것이였다. 아마도 이 병원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마을의 문제를나 꾸리기 문제가될는 특이한 문제들이 우선적으로 다루어진다.

하지만 이곳 병원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격이 다르다고 할수 있는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그토록 관심을 기울이고있는가. 언제인가 환부들 주된들의 건강상태에 대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토해하던 원장 김영학동무는 장병성정병을 앓고있는 몇몇 환자들의 병력에서 뜻밖에도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였다. 그들이 모두 한동안에서 살고있다는 사실이였다.

호담당의사를 불러 알아보니 몇달전에도 그 동네에서 이런 질병을 앓는 환자들이 병원에 찾아왔던적이 있다는 것이다. 같은 지역에서 같은 질병이 발생되고있다는 사실은 결코 스쳐지나보낼수 없는 중요한 문제였다.

몇몇 호담당의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어보니 그들은 그 원인을 밝히지 않았지만 찾아오려 하는것이였다. 그것이 정확한 원인이 못된다것을 잘 알고있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태도를 취하는 그들의 어조는 우리가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친근감을 주는것이였다. 아마도 이 병원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마을의 문제를나 꾸리기 문제가될는 특이한 문제들이 우선적으로 다루어진다.

하지만 이곳 병원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격이 다르다고 할수 있는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그토록 관심을 기울이고있는가. 언제인가 환부들 주된들의 건강상태에 대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토해하던 원장 김영학동무는 장병성정병을 앓고있는 몇몇 환자들의 병력에서 뜻밖에도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였다. 그들이 모두 한동안에서 살고있다는 사실이였다.

호담당의사를 불러 알아보니 몇달전에도 그 동네에서 이런 질병을 앓는 환자들이 병원에 찾아왔던적이 있다는 것이다. 같은 지역에서 같은 질병이 발생되고있다는 사실은 결코 스쳐지나보낼수 없는 중요한 문제였다.

몇몇 호담당의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어보니 그들은 그 원인을 밝히지 않았지만 찾아오려 하는것이였다. 그것이 정확한 원인이 못된다것을 잘 알고있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태도를 취하는 그들의 어조는 우리가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친근감을 주는것이였다. 아마도 이 병원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마을의 문제를나 꾸리기 문제가될는 특이한 문제들이 우선적으로 다루어진다.

하지만 이곳 병원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격이 다르다고 할수 있는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그토록 관심을 기울이고있는가. 언제인가 환부들 주된들의 건강상태에 대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토해하던 원장 김영학동무는 장병성정병을 앓고있는 몇몇 환자들의 병력에서 뜻밖에도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였다. 그들이 모두 한동안에서 살고있다는 사실이였다.

호담당의사를 불러 알아보니 몇달전에도 그 동네에서 이런 질병을 앓는 환자들이 병원에 찾아왔던적이 있다는 것이다. 같은 지역에서 같은 질병이 발생되고있다는 사실은 결코 스쳐지나보낼수 없는 중요한 문제였다.

개천시 무진대관광병원 일군들의 사업에서

이것이 예방이 화적 방침에 관제하여 인리별이 건강을 책임지자

이것이 예방이 화적 방침에 관제하여 인리별이 건강을 책임지자

이것이 예방이 화적 방침에 관제하여 인리별이 건강을 책임지자

이것이 예방이 화적 방침에 관제하여 인리별이 건강을 책임지자

이것이 예방이 화적 방침에 관제하여 인리별이 건강을 책임지자

이것이 예방이 화적 방침에 관제하여 인리별이 건강을 책임지자

이것이 예방이 화적 방침에 관제하여 인리별이 건강을 책임지자

이것이 예방이 화적 방침에 관제하여 인리별이 건강을 책임지자

이것이 예방이 화적 방침에 관제하여 인리별이 건강을 책임지자

이것이 예방이 화적 방침에 관제하여 인리별이 건강을 책임지자

이것이 예방이 화적 방침에 관제하여 인리별이 건강을 책임지자

이것이 예방이 화적 방침에 관제하여 인리별이 건강을 책임지자

이것이 예방이 화적 방침에 관제하여 인리별이 건강을 책임지자

이것이 예방이 화적 방침에 관제하여 인리별이 건강을 책임지자

이것이 예방이 화적 방침에 관제하여 인리별이 건강을 책임지자

이것이 예방이 화적 방침에 관제하여 인리별이 건강을 책임지자

이것이 예방이 화적 방침에 관제하여 인리별이 건강을 책임지자

이것이 예방이 화적 방침에 관제하여 인리별이 건강을 책임지자

이것이 예방이 화적 방침에 관제하여 인리별이 건강을 책임지자

이것이 예방이 화적 방침에 관제하여 인리별이 건강을 책임지자

이것이 예방이 화적 방침에 관제하여 인리별이 건강을 책임지자

이것이 예방이 화적 방침에 관제하여 인리별이 건강을 책임지자

이것이 예방이 화적 방침에 관제하여 인리별이 건강을 책임지자

이것이 예방이 화적 방침에 관제하여 인리별이 건강을 책임지자

이것이 예방이 화적 방침에 관제하여 인리별이 건강을 책임지자

이것이 예방이 화적 방침에 관제하여 인리별이 건강을 책임지자

이것이 예방이 화적 방침에 관제하여 인리별이 건강을 책임지자

이것이 예방이 화적 방침에 관제하여 인리별이 건강을 책임지자

이것이 예방이 화적 방침에 관제하여 인리별이 건강을 책임지자

이것이 예방이 화적 방침에 관제하여 인리별이 건강을 책임지자

합경북도인민위원회 일군들

합경북도인민위원회 일군들

합경북도인민위원회 일군들

합경북도인민위원회 일군들

합경북도인민위원회 일군들

합경북도인민위원회 일군들

합경북도인민위원회 일군들

합경북도인민위원회 일군들

합경북도인민위원회 일군들

합경북도인민위원회 일군들

합경북도인민위원회 일군들

합경북도인민위원회 일군들

합경북도인민위원회 일군들

합경북도인민위원회 일군들

합경북도인민위원회 일군들

합경북도인민위원회 일군들

합경북도인민위원회 일군들

분덕군 립석리인민병원에서

분덕군 립석리인민병원에서

분덕군 립석리인민병원에서

분덕군 립석리인민병원에서

분덕군 립석리인민병원에서

분덕군 립석리인민병원에서

분덕군 립석리인민병원에서



현대과학기술을 열심히 배우고있는 합경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

지식인들의 삶을 빛내여주는 어머니당의 뜨거운 은정

지식인들의 삶을 빛내여주는 어머니당의 뜨거운 은정

우리 나라 외무상이 앙골라공화국 대통령을 만났다

우리 나라 외무상이 앙골라공화국 대통령을 만났다

우리 나라 외무상이 여러 나라 국가, 정부수반들을 만났다

우리 나라 외무상이 여러 나라 국가, 정부수반들을 만났다

우리 나라 외무상과 앙골라대외관계상 회담

우리 나라 외무상과 앙골라대외관계상 회담

백두의 공격정신으로 영원히 승리만을 펼쳐가리

백두의 공격정신으로 영원히 승리만을 펼쳐가리

대결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일촉즉발의 초긴장상태를 가지고 북한 판계개선의 길을 열어놓은 8월의 북남 합의가 채택되지도 석달이 되어온다. 이 나날은 북남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한 우리의 추후적인 노력과 그에 따른 결실로 이어진 나날이었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기초하여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북남판계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8월의 북남합의의 핵심이었다. 그러나 합의 후 우리는 약속한 북남판계를 개선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추동하려는 의지를 안고 휴먼리 가족, 친척 상봉과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위한 북남판계추진위원회 성립을 시켰다. 이것은 온 거머에게 기쁨을 안겨주고 통일에 대한 희망을 북돋아주었다. 우리 민족끼리의 힘에서 북남판계에서의 대진환, 대변혁을 이룩하여 분열로 인한 거머의 고통을 하루빨리 가시려는 우리의 조지와 노력은 내외의 커다란 지지와 환영을 불러일으켰다.

문제는 우리의 이러한 북남판계개선에 노력에 남조선당국이 구태연한 반공화국 대결정책으로 도전해나서면서 모처럼 마련된 대화와 긴장완화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있는 것이다.

남조선당국자들은 말로는 《대화》에 대해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외세의 공모적합을 강화하면서 대화상대방을 해지하기 위한 적대행위만 일삼고있다. 금강산에서 북과 남의 휴먼리 가족, 친척들이 뜨거워지는 정서와 남북간 대화와 긴장완화의 분위기를 찬물로 식혀놓고 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말로는 《대화》에 대해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외세의 공모적합을 강화하면서 대화상대방을 해지하기 위한 적대행위만 일삼고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말로는 《대화》에 대해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외세의 공모적합을 강화하면서 대화상대방을 해지하기 위한 적대행위만 일삼고있다. 금강산에서 북과 남의 휴먼리 가족, 친척들이 뜨거워지는 정서와 남북간 대화와 긴장완화의 분위기를 찬물로 식혀놓고 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말로는 《대화》에 대해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외세의 공모적합을 강화하면서 대화상대방을 해지하기 위한 적대행위만 일삼고있다.

반인륜범죄는 지워버릴수 없다 | 사대굴종행위, 역사쿠데타를 강력히 규탄한다

오늘 일본에서 특대형반인륜범죄를 저지른 범죄국에는 어울리지 않는 피어난 소동이 벌어지고 있다. 일본반동들이 일본군《위안부》문제와 관련하여 재판에서 편일 여론전을 펴고있는것이 그 단적인 사례이다.

이와 관련하여 전 일본수상 하토야마는 현 집권지와 일본정부가 그릇된 태도를 강하게 추궁하였다고 그는 식민지배의 책임을 언급한 일본학자의 주장을 인용하며 《위안부》를 통해 과거사에 대한 집권자의 전후 70년 담화는 남북합의가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비난을 퍼부었다.

이전 수상 무라이마도 《위안부》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정부는 추가적인 노력을 해야 하는 입장이다.》, 《지난 8월 집권자의 담화는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의 인식이 빠졌다.》, 《수상으로서의 나는 동의하지 않다. 담화를 발표할 필요가 있었을가 하는 의문도 든다.》고 하면서 《위안부》문제에 대한 사과표명과 피해자에 대한 배상은 필요하다.》고 다시금 강조하였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나 더러운 침략역사와 반인륜범죄를 덮어버리고 오심을 부리는 현 당국의 파렴치성과 도덕적저열성을 대변 용당한 비난이다.

일제 제 패망한지 70년이 되는 올해에 세계는 지난 세기 침략전쟁과 군사적강점으로 우리 나라를 비롯한 아시아나 인민들에게 커다란 고통과 고통을 들이치는 일본이 살륙과 파괴, 약탈로 얼룩진 범죄역사를 심각히 돌이켜보고 그에 대한 명백한 사죄와 배상을 할것을 요구하고있다.

그러나 일본정부의 태도는 과연 어떠한가. 과거 역사를 뒤집어엎기 위한 행위들을 더욱로 몰고오는 강행하고있다. 현 집권자는 지난 8월에 발표한 《담화》에 후안무치하게도 《전쟁과 관련된 인사는 전후세대에게 사죄를 계속할 숙명을 지워서는 안된다.》고 떠벌이면서 과거사에

실현하려는것이 미국의 속심이다. 그런데 남조선당국이 북남판계개선에 대한 적대정책으로 광범하는 미국과 적극 공모적합함으로써 북남판계개선에 엄청난 난관과 리전지 없이는것을 말해준다.

최근 남조선군부대거리는 미국과 제4 0차 군사위원회 회의, 제4 7차 《네안도합의》라는 것들을 편이러 벌려놓고 북남판계개선을 모의하였다. 내외호전행위를 《도발적》, 《북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공격적행위》니 하는 파위의 화약분기는 특연들을 늘어놓으며 《4D작전계획》의 수위를 공식발표하고 그것을 《작전계획 5015》에 반영하여 앞으로의 행동공약안들에 적용하기로 한것은 조선반도의 정세를 또다시 긴장시키는 소용돌이속에 벌어지는 엄청난 도발행위이다. 남조선당국이 외세의 반공화국공조에 매달리며 동족과 대결하는 길로 계속 나가면 북남사이에서 모처럼 마련된 판계개선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파탄될수 있다.

남조선당국의 대결정책은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립을 격화시키고 《대화》의 분위기를 실연하기 위한 범죄적합본이다.

지금 남조선당국자들은 외세와 함께 반공화국공조와 《인원보복행동》에 이르는 데다 기세를 부리고있다. 최근 남조선당국이 유엔에서 그 무슨 《북인권의인》이라는 반공화국모략문서를 꾸며내기 위해 외세와 공모적합한 사실과 서울에서 동족을 모욕하기 위한 《인권의인》을 버려놓는것을 보여준다. 《인권의인》의 간판에 우리의 존엄을 세우는 제도를 악용해서 위협을 가하는 것은 반공화국대결정책을 고취하는 이런 불순한 놀음이 종당 《세계평화》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당동이라는것은 무망한 필요가 없다.

남조선에서 《국정화》의 간판에 벌어지고있는 역사외교행위를 통하여 《세계평화》를 정확화하고있는 남조선집권세력의 용감한 기도는 더욱 명백해지고있다.

핵공조구걸병자의 역겨운 추태

남조선외교부 장관 윤병세의 교질적인 구걸병이 또다시 발작하였다. 며칠전 북남합의에서 열린 어느 한 국제회의장에 갔을 때 남조선외교부 장관은 《4D작전계획》의 수위를 발표하고 그것을 《작전계획 5015》에 반영하기로 한것은 우리에게 대한 핵공조구걸이 얼마나 위험한 단계에 이르렀는가 하는것을 똑똑히 보여준다.

모든 문제의 해결에는 선후차가 있는 법이다. 조선반도에서 핵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자면 조선반도의 평화를 파괴하는 미국과 남조선외교부 장관들의 핵공조구걸과 북남판계개선에 발목을 잡는 것이다.

우리의 핵역세력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핵위협이 계속되는 한 때, 천배로 더욱 강화될것이다. 우리의 결심과 의지는 그 누구의 압력이나 회유, 그 어떤 제재에도 흔들림수 없다.

윤병세는 이번 핵각지에서 북남판계문제에 대해서도 황실수설하였다. 하지만 남조선당국자들이 외세를 분주히 찾아다니며 《북핵포기》실현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공조를 강요하는것은 오히려 북남판계개선을 가로막는 행위이다.

남조선당국은 핵문제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북남판계문제를 서로 결부시키면서 핵문제의 해결이 없는 《남북판계개선에 한가지》 있을수 없다고 떠들어대고 있다. 그리고 《선택포기》이상을 한사코 실현하기 위해 외세를 통해 얻고 반공화국공조구걸합의문제를 앞세워 남조선당국이 우리 민족끼리 아니라 외세의 공조를 택하면서 그와 야합하여 반공화국공조구걸을 부리는것은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립을 격화시키고 모처럼 마련된 대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에다 거머놓기이다.

남조선당국자들은 그 무슨 《북핵문제》를 떠들어 외세와 공모적합하여 동족을 반대하는 정치군사적도발소동에 앞장서고 있다. 북남판계개선의 해결을 더욱 복잡하게 하고 거기에 넘을수 없는 장애를 조성하는 어리석은 망동이라는것을 알아야 한다.

남조선당국은 조선반도비핵화를 가로막고 북남판계를 파괴하고 물이기는 반공화국핵공조구걸을 용서치 않아야 한다.

심철영

세계민주청년련맹 제19차대회 진행 제국주의자들의 강권과 지배주의책동 단죄

[아바나 11월 13일] 조선 중앙청년세계민주청년련맹 제19차대회가 9일부터 12일까지 쿠바의 아바나에서 진행되었다.

대회에는 우리 나라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대표단을 비롯한 36개 나라 청년학생조직대표단들과 대표들,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대회에서 연설들이 있었다. 련맹위원장인 제국주의자들의 강권으로 세계의 평화와 안정이 파괴되고 심각한 정치경제적 혼란이 지속되고있으며 주권국가들에 대한 대진환과 정권변동도 끊임없이 강행되고 있다고 규탄하였다.

그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무모한 전쟁소용돌이로 하여 조선반도정세가 극도로 악화되고있으며 사회주의를 압살하기 위한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이 더욱로 광화되고있다고 단죄하였다.

이번 대회를 계기로 련맹의 모든 조직들이 세계를 제패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을 반대하고 평화로운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데 대해 강조하였다.

쿠바공산주의청년동맹 전국위원회 제1비서는 제국주의는 세계 진보적인류와 청년들의 공동의 원수라고 하면서 본대회가 제국주의자들에게 타격을 가하는 중요한 계기로 될것이라고 언명하였다.

그는 련맹이 앞으로 국제무대에서 반제국주의 투쟁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계평화회의를 집행하기는

남조선의 경상남도지역 단체들이 규탄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집행위원회는 경상남도지역 단체연대회의, 경남진보연합을 비롯한 경상남도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10월 29일 경상남도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가지었다.

단체들은 얼마전 남조선일본국방장관외교사 일본이 《사위》의 조선반도진출과 관련하여 남조선의 통일을 사실상 거부하였다고 하면서 결국에도 이단과 단계를 비난하였다.

침략자, 전범국가의 우두머리 가 처벌당도 아닌 이 땅에서 감히 그따위 망발을 늘어놓는것도 도저히 용납할수 없다고 단죄하고 나서 내신 《그런 말이 없었다.》고 진실감추기에 금강하고 있다고 단계를 비난하였다.

이것은 미국, 일본과의 동맹 단체가 주장

남조선의 국제 단체가 주장

남조선인터네트신문 《동일뉴스》에 의하면 반미대립민주통분회협의회와, 《교과서 국정화저지네트워크》를 비롯한 남조선 각계 단체가 10월 31일 서울대학교에서 모임을 가지고 당국의 역사교과서《국정화》행동을 규탄하였다.

모임에서 발언자들은 현 《정부》와 《세누리당》이 추구하는 것처럼 온 현 《정부》의 역사교과서《국정화》를 막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남조선의 참여연대가 강조

남조선의 참여연대가 강조

남조선의 참여연대가 3일 성명을 발표하여 역사교과서《국정화》를 위한 선진과 여론 조작에 열을 올렸다고 단죄하였다.

남조선인터네트신문 《민중의소리》가 5일 《미일조직원도자라 집결전까지 숨기나》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사설은 4일 《국사편찬위원회》가 《국정교과서》집필권을 공개할수 없다고 밝힌것은 밀실에서 《국정교과서》를 만들겠다는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국정화》추진조직체제를 비밀리에 꾸린 《정부》가 집필권을 공개하지 않는것은 용납할수 없다고 사설은 비난하였다.

사설은 역사학계와 교육계의 절대다수가 《국정교과서》집필 거부를 선언한 조건에서 집필에 용할 태상은 전일교 독재는 규탄하였다.

남조선 언론이 비난

남조선인터네트신문 《민중의소리》가 5일 《미일조직원도자라 집결전까지 숨기나》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사설은 4일 《국사편찬위원회》가 《국정교과서》집필권을 공개할수 없다고 밝힌것은 밀실에서 《국정교과서》를 만들겠다는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국정화》추진조직체제를 비밀리에 꾸린 《정부》가 집필권을 공개하지 않는것은 용납할수 없다고 사설은 비난하였다.

사설은 역사학계와 교육계의 절대다수가 《국정교과서》집필 거부를 선언한 조건에서 집필에 용할 태상은 전일교 독재는 규탄하였다.

반미강경 자세를 교수해나가는 이란

이란이 반미강경자세를 교수해나가고있다.

지난 4일 이란의 수도에서는 미국대사관앞에서 36층에 조여하여 반미집회가 벌어졌다. 이집 미대사관앞에서 벌어진 집회에는 수천명의 개성군중이 참가하였다.

집회참가자들은 미국기발을 불태우고 반미구호를 외치며 미국대사관이 간첩소굴이었다고 비난하였다. 그들은 미국은 거대한 악마이며 오만한 세력과의 싸움은 정당행위라고 하면서 전세계의 평정시대를 계속 이어 나갈것을 표명하였다.

이런대통령 하만 루하니는 어느 한 언설에서 1979년 11월 있었던 자국주변 미국대사관앞에서 벌어진 정치적반란과 독립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놓은 계기로 되었다. 미국대사관앞에서 벌어진 독립과 오만한 멸망을 반대하는 투쟁의 기초가 마련되었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이란이슬람혁명적지도자 코메이니의 지시에 따라 단행된 미국대사관앞에서는 무례한 혁명으로 간주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이란이 자부심을 안고 돌이켜보는 미국대사관앞에서는 어떻게 되어 발생하게 되었는데 1979년 2월 이란인민은 친미반동적인 파르시왕정정권을 뒤집었고 이슬람교혁명의 승리를 이룩하였다. 혁명

세계민주청년련맹 제19차대회 진행 제국주의자들의 강권과 지배주의책동 단죄

세계의 평화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유엔이 자기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있으며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도구로 이용되고있는데 대해 폭로단죄하였다.

미국의 강권과 지배주의 책동, 나토의 군사적위협을 허용하는 이중기준이 무너지고있는 데 대해 언급하면서 그 조선은 비호한 자국적인 나라들에 대한 제재가 이를 실재시키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유엔이 세계 진보적인류의 목소리를 커울 기를 이용하여 미국의 주권유언을 청년들이 반제국주의적 투쟁을 계속하여 호소하였다.

앙골라에서 독립절 기념

앙골라에서 11일 독립 40돐을 기념하였다.

수도 루안다에서 경축행사가 진행되었다.

앙골라대통령 주제 에두아르 두 두스 신투스가 행사에 참가하였다.

또한 리우송의 무상을 단장으로 하는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도 비롯한 여러 나라 대표단이 참가하였다.

미국에서 인종주의 반대시위

미국의 미주리주에서 9일 인종주의 반대시위가 벌어졌다.

최근 미주리대학에서 흑인학생들에 대한 차별행위가 의심하게 나타났는데에 반발하여 일어난 시위에는 많은 군중이 참가하였다.

시위자들은 흑인학생들을 차별하는 대학당국의 부당한 처

인디아에서 란도미싸일 시험발사

인디아가 9일 동부오리차 주안바다에 있는 시험장에서 자체로 개발한 《아그니-4》란도미싸일을 시험발사하였다.

핵탄두를 탑재할수 있는 이 미싸일의 길이는 20m, 무게는 17톤이며 사거리가 4000km에 달한다고 한다.

[조선중앙통신]

앙골라에서 독립절 기념

앙골라에서 11일 독립 40돐을 기념하였다.

수도 루안다에서 경축행사가 진행되었다.

앙골라대통령 주제 에두아르 두 두스 신투스가 행사에 참가하였다.

또한 리우송의 무상을 단장으로 하는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도 비롯한 여러 나라 대표단이 참가하였다.

앙골라에서 독립절 기념

앙골라에서 11일 독립 40돐을 기념하였다.

수도 루안다에서 경축행사가 진행되었다.

앙골라대통령 주제 에두아르 두 두스 신투스가 행사에 참가하였다.

또한 리우송의 무상을 단장으로 하는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도 비롯한 여러 나라 대표단이 참가하였다.